

ISSUE & FOCUS

Newsletter 2016-9(4)

이상한 나라의 취업준비생

박진영
26세 취업준비생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안녕하세요 취준생입니다.

나는 1년 6개월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자 대학생이다. 4년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졸업을 미루면서 취업준비를 시작했고 그해 상반기에 줄줄이 탈락하면서 낮아진 자존감과 사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복수전공을 시작해 현재는 학업과 취업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나의 취업 실패 소식에 주변 친구들은 '네가 왜?'라는 반문을 보일 정도로 나는 대학 4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결론적으로 나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대학교 6학년이다.

노력을 얼마나 했냐고요?

4년간의 대학 생활은 내게 학점, 대외활동, 봉사활동, 수상경력, 현장체험활동, 해외봉사, 컴퓨터 자격증, 영어성적 그리고 4학년 1학기에 학교 친구들과 창업을 했던 경험을 남겨주었다. 졸업하기 위해 취득한 영어성적과 컴퓨터 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은 대학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들이다.

후에 취업준비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관심 분야인 마케팅과 서비스업에 잘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관련 직종에 지원서를 쓰게 되었다. 그러나 4년간 나를 만들었던 이 경험들은 대부분 취업 시장에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경험보다는 높은 영어 성적, 제2외국어 능력, 인턴 경험, 더 많은 수상경력이 취업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스펙이라는 걸 확인했다. 1년 6개월 동안 나는 각종 스펙을 채우기 위해 관련 학과로 복수전공을 하며 더 바쁘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6살, 문과, 여자, 취업준비생

국내 대기업 서류 합격 후 인·적성 시험을 준비하던 지인이 학원에서 들은 ‘취업 카스트’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빗대 전공, 성별 등을 취업이 잘 되는 순서로 나눈 ‘취업 카스트’에 의하면 26살, 문과, 여자인 나는 최하층에 속한다. 나는 취준생이 되기 전까지 ‘나는 여자라서, 문과라서 취업이 안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금방 취직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취업준비를 시작했고 준비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이 안 된다는 게 뭔지, 먼저 졸업한 친구들이 왜 대학원을 가는 지, 아르바이트를 왜 오래 하는지 그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서울 4년제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높은 영어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내 친구가 있다. 이 친구는 무역회사와 금융업계의 문을 2년째 두드리고 있다. 취업이 잘 안 되자 상담료 20만원을 지불하고 찾아간 취업컨설팅업체는 친구에게 스펙도 좋고 스토리도 좋지만, 취업이 어려운 2가지 이유를 알려줬다. 첫 번째는 ‘학벌’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의지로 당장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면 이과 갈 거야.’ 등 바꿀 수 없는 과거 이야기를 밤 늦도록 나눴다.

올해 여름방학 인턴을 했던 복지가 좋았던 IT기업에서 인턴을 끝 낼 즈음 취업 이야기가 잠시 오고 갔다. 아직 학기가 남아있어 당장 취업은 어려웠지만, 면접 과정에서 나에게 온 질문은 “남자친구 있어요?”, “오래 만났어요?”가 중심이었다. 결혼 여부와 가능성이 취업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취업준비생을 고민하게 하는 소문이 참 많다. ‘A기업은 작년 상반기 통틀어 여자 합격자가 2명이었다.’, ‘최종 면접장에 면접관 옆에 관상 보는 사람이 있었다.’ 등 쉽게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다. 그러나 취업이 간절한 취업준비생들은 이런 소문도 흘려들을 수 없다. 상반기 하반기 취업시즌이 되면 기업들이 거의 동시에 모집공고를 내기 때문에 필기전형, 면접전형 날짜가 다른 기업들과 겹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취업준비생들은 이왕이면 나를 뽑을 것 같은 회사를 택하기 위해 갖가지 소문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것들

2011년. 내가 대학에 입학한 해이다. 여전히 나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횡수로 6년째,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여자인 내가 학교를 꾸준히 다닌 것이다.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졸업을 하면 백수가 되기에, 매 학기 학비를 지불하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취업이 이렇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신입을 뽑는 대기업 스펙은 높았고, 그 스펙을 따라잡으려고 학원과 스터디를 전전해야만 했다. 1년 6개월 동안 취업준비를 하면서 나는 영어점수를 높였고, 인턴 경력을 추가했으며,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스펙을 얻었다. 나이가 많은데 대기업에만 취업하려는 게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경력직 공고가 주로 올라오고 신입을 뽑는데 인색하다. 내가 매달릴 곳은 잉여인력을 보유할 수 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뿐이다. 어차피 중소기업 공고에 고스펙 지원자가 모이기는 마찬가지다. 요즘 제2금융권 면접에서 경력직과 명문대 출신 학생들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1년 6개월 전 처음 입사지원서를 작성했을 때 경력에 아무것도 쓸 게 없어서 빈칸으로 제출했다. 나는 방금 대학을 마친 학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출한 그 서류는 ‘당연’하게 떨어졌다. 같이 지원한 언니는 나에게 인턴이라도 경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해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채와 인턴을 동시에 지원했다. 날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점은 경력을 만들기 위해 인턴에 지원 했는데 인턴 지원서에도 경력 기입란이 있다는 것이다. 겨우 기회를 잡은 인턴 면접에서 “왜 경력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내가 남들보다 많이 부족한가보다’는 자책감에 울었던 적도 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는 신입사원 공채에서 경력직이랑도 싸워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 면접을 보러 가면 2년 이내의 관련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이다. 신입사원에게 경력은 필수가 되고 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이 시작되었다. 나는 작년보다 더 나은 스펙을 갖기 위해 학원을 다니고, 스터디를 하고, 취업설명회를 돌아다닌다. 그리고 이런 행동에는 돈이 들지만,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제 면접이나 필기시험 일정이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어찌랴?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힘든 지금도 취업준비생을 탈출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나는 오늘도 지원서를 작성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